

광주시, 광산구에 명품 브랜드쌀 생산단지 구축

광주 광산구 삼도·본량 일원에 명품 브랜드쌀 생산단지가 구축된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명품 브랜드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 삼도·본량 일원을 중심으로 총 50ha 규모의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2개 농가가 참여해 기존의 개별·분산형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단지화 기반의 체계적인 재배·관리와 공동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의 표준화와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시비 80%, 자부담 20%로 구성돼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성을 함께 담보하는 구조다.

재배 품종은 국내 육성 최고품질 비인

삼도·본량 22농가 50ha 시범단지화...2년간 4억 투입
조명1호·영호진미 중심 고급화 전략...사업 설명회도

'조명1호'와 '영호진미'를 중심으로 한다. 밥맛과 외관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종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쌀 생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생산·수매·유통이 연계된 통합형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광주통합RPC)과 지역 농업이 함께 참여한다.

센터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 대상자 선정, 토양 검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기반을 다졌다.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토양검정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시비 관리와 생육 단계별 기술지도도 지속적

으로 실시해 균일한 품질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산된 쌀은 광주통합RPC를 통해 유통·판매하고, 향후 브랜드화까지 연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됐다. 센터는 18일 참여 농업인과 농업, 광주통합RPC, 육묘장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품종별 재배 특성과 관리 요령을 비롯해 종자 소독과 육묘 관리, 물 관리와 시비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사업 추진 방향과 공동 생산체계 운영 방안도 함께 안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참여 농업인과 농업, 광주통합RPC, 육묘장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내되며 참여 농가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을 통해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브랜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구축해 농

가 소득 향상과 지역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오통 방문

초경량 저선량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생산현장 점검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18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혁신제품 지정기업 주식회사 오통(대표 오준호)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혁신제품 생산 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제품인 '초경량 저선량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는 초경량 설계로 한 손으로 휴대가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병동, 응급 현장, 의료 소외 지역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인 촬영과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저선량 기술이 반영돼 환자와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고해상도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이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지방조달청은 18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혁신제품 지정기업 주식회사 오통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시간을 가졌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상...내달 17일까지 접수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치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김치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현대백화점이 후원한다.

최근 국내 김치 소비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과 산업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모전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김치 가공식품과 서비스 분야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라면 개인이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김치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비롯해 유통 플랫폼, 구독 서비스,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등 김

치산업과 연계된 전반적인 창업 아이디어다.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평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 3차 발표평가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약 5개월간 시제품 개발 기회가 주어지며, 연구소의 기술·정보 지원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참가팀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5개팀을 선발해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정부·기관장 상장을 수여한다. 대상 수상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대형 유통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농협-남부대,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

농촌 일손돕기·학점 인정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김대현)는 최근 남부대학교와 농업·농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농촌 현장학습은 학생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아 농작물 수확 등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남부대학교와 농업·농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촌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 및 봉사시간 인정,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농촌 현장

학습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대현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처장은 "협력을 강화해 농업인 인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농협 전남본부와 농업·농촌 현

장학습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은 기존 광주대, 초당대, 청양대, 순천제일대에 이어 남부대학교까지 총 5곳으로 확대됐다.

대학 참여 기반이 넓어지면서 농촌 일손 지원의 지속성과 규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전남본부는 대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인력 지원 체계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 완화는 물론, 청년층의 농업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접 이해하고, 식량 문제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학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농업인 인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기후위기 대응 수리·수문 설계시스템 고도화

농어촌공사, 미래 기후데이터 기반 분석 효율성 높여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후 위기가 가속하는 가운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미래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민중)는 안정적 영농 기반 제공을 위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고도화한 'K-HAS CS 2.0'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래 기후를 반영한 시설물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사는 'K-HAS CS'를 개발해 농업용 시설물 설

계에 미래 기상자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학계·기업 등 민간에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활용 건수는 807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번에 'K-HAS CS'의 고도화 버전을 선보이며 기능을 한층 확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효율성'이다.

기존에는 여러 변수에서 단일 조건만을 선택해 분석할 수 있었으나, 이제 최대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 작업 속도가 빨라진 것은 물론, 변수 간의 영향 분석도 가능해졌다. 결과 표현 방식도 표와 그래프 중심에서 그림 자료

를 추가해 사용자가 결과를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미래 홍수 분석 기능을 새롭게 더해 활용 범위를 넓혔다. 공사는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홍수·가뭄 등 재해 취약지역의 미래 기후 영향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무료 개방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현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처장은 "농업용 시설물 설계기준 재정비라는 제도적 기반과 프로그램 고도화라는 기술 선택을 함께 추진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

재해로부터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

대촌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 발대

9년째 운영...7개 작업반 72명 인력 구축

대촌농협은 최근 농협 회의실에서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인력증개센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대촌농협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9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업 초기 2개 영농작업반, 20여명 규모로 출발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7개 작업반, 72명의 인력으로 확대되며 지역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계획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작업반장 소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실천 선언,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여 인력의 필요성 제고와 체계적인 현장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농촌인력증개센터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와 유류 인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영농 지원 체계



대촌농협은 18일 농협 회의실에서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인력증개센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농협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수급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K-푸드, 콘텐츠 입고 날개 달다

콘진원, 한류·농식품 연관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산업이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K-푸드, 콘텐츠를 입고 날개 달다' 코카포커스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콘진원은 특수분류체계를 활용해 산업 연관표를 재구성하고, 콘텐츠 산업이 한국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757로 나타났고, 이중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는 0.080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는 콘텐츠 산업이 문화 확산을 넘어 농식품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수출이 10%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농식품 생산액은 약 1660억원, 전체 산업 생산액은 약 3조788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농산물 원재료가 다 가공식품이나 외식 등 최종소비재 분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송진 콘진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분석은 콘텐츠 산업의 파급력이 문화 현상을 넘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콘텐츠와 연관 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K-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